지구촌 파송 내셔널 미셔너리로 부름받아

제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저는 이곳의 학교의 친구들과 바쁘지만 단순한 삶이 그리웠습니다. 텐진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부모님을 우선 뵈었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반갑게 환영해 주는 것이 아주 고마웠는데, 그러한 반가움은 처음 그들을 떠나올 때의 슬픔을 잊게끔 해주었으며 그들이 저의 매일의 삶에 일부로 금방 통합되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에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목사리더십 세미나에서 Chen목사님의 통역자로서 저는 강의를 통역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설교통역은 해 본 적이 있지만 이러한 큰 무대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이 전공인 학생이 아니고 언어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사실 아주 긴장되었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5시간을 기차로 이동하여 세미나가 열리는 항저우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통역을 통해) 중국목사님들과 Chen목사님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저는 더욱 하나님을 향해 제 자신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미팅 후에 저는 많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저의 역량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통역하며 배열을 더 완벽하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이 길을 걸어오신 중국목사님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미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길을 10년이상 걸어오신 분들이십니다. 현재의 중국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목회적 철학을 어떻게 중국의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 강화에 맞서 선교사님들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발전시키실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답을 찾기 전에 이 세대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제가 많은 영감을 주었고 제가 쓰임 받았으며 제가 이 세미나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계속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텐진으로 돌아와서 교회사람들과 이번 연도 예배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최근 몇 년 간 교회에 없었음에도 모두가 영적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소중한 영혼들을 제게 맡겨주심에 교회의 부흥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제가 그들과 믿음의 산과 협곡을 함께 넘는 삶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텐진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교회의 한 형제가 고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밤새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매우 피곤했지만 김선교사님께서 ‘아버지 도시’라 할 수 있는 Wuxi로부터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차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고, 그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저는 교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두머리가 아닌 종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에 삶이 변합니다. 모두가 자라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믿음의 길로 굳건히 걸어가며 이것이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믿음이 건강한 교회리더십의 전제조건입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이며 독서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Written by 우월